

Milliken사의 친환경 비불소계 발수 원단 'Breathe'

Milliken & Company(미국)는 최근 친환경 실내장식용 원단 'Breathe'를 신규 출시하였다. 방오성 원단으로 외관과 촉감의 손상이 없으며, 세탁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는 제품이다. 업계 최초로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비불소계 발수 원단으로, 천연섬유 또는 플라스틱 병으로부터 만들어진 재활용섬유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친환경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성능을 갖춘 홈 실내장식용 원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Milliken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Breathe' 원단을 제조하였다.

'Breathe'는 불소,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난연제 등의 화학약품의 적용없이 난연성, 발수성, 방오성, 염색 견뢰도, 내마모성 및 필링 시험에 대한 산업 표준을 충족한다. 일반적으로 스프레이 가공 방법으로 제조되는 SR(Soil Resistant) 가공 원단들과 달리, 'Breathe' 원단은 지속적인 내구성을 지닌다.

엄격한 화학성분 방출 기준을 충족하여 미국 UL Environment에서 운영하는 GREENGUARD® GOLD(미국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실내 공간 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제품 재료 및 성분, 제조 방법, 제조업자 등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 'Breathe'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되었으며, 'Breathe' 원단을 사용하여 오염이나 마모로부터 가구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 Textileworld 홈페이지(17.01.31)